

장모종(長毛種) 양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양종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갖고 있는 고기용 품종으로 거대한 골격에 몸집이 크기 때문에 넓은 체표면(體表面)과 넓은 어깨를 갖고 있다. 플리스는 세번수나 중번수의 양모에 비하면 대단히 거칠고, 섬도가 굵으며, 양모의 길이가 길다.

이 종류의 양은 주로 평지에서 사육되고, 중번수 양모종에는 맞지 않는 비가 많고, 습기가 많은 저지대에서 잘 자란다. 대표적인 양종으로는 링컨, 롬니 마시, 레스터, 코츠월드, 다투어 등이 있다. 각 양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링컨(Lincoln)

영국 장모종 중의 하나로 링컨셔(lincolnshire)지방의 작은 소택지(沼澤地)의 양을 원종으로 하여 1750년경부터 링컨이란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여러 번의 개량을 통하여 장모종 중에서도 가장 큰 몸집을 갖고 있으며, 발굽과 입언저리 그리고 코 부분을 제외한 얼굴과 네 다리는 백색이다. 플리스의 섬도는 $38 \sim 46 \mu\text{m}$, 길이 $300 \sim 400 \text{ mm}$,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5.5 \sim 6.5 \text{ kg}$ 다. 플리스는 외측의 털끝이 독특한 크림프(crimp)가 있는 양모로 덮여 있으며, 얼굴 전면은 긴 술 모양(房狀)의 털로 덮여 있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에 분포되어 있다.

2. 롬니 마시(Romney Marsh)

역시 영국종의 하나로 영국 동남부의 켄트 평원지대를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는 켄트(Kent)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플리스의 섬도는 32 ~ 36 μm , 길이가 175 ~ 225 mm,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3.6 ~ 4.5 kg으로 다른 영국종 장모종에 비하여 조밀도가 높고, 섬도가 가늘며, 권축률도 뚜렷하다. 광택은 약간 둔하다. 이 롬니 마시는 뉴질랜드 양종의 대명사격이고, 다음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3. 코츠월드(Cotswold)

이것도 영국 순혈종의 장모종이다. 영국 Gloucester의 Cotswold Chilterns 지방에서 중세기부터 사육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영국 양모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근래 다른 품종에 밀려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양은 흰 얼굴에 뿔이 없으며, 표준형의 양은 몸집이 크고, 키가 크며, 스타일도 좋다. 양모의 섬도는 36 ~ 38 μm , 길이는 200 ~ 300 mm,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4 kg으로 섬도가 굵고, 지방이 적다.

4. 레스터(Leicester)

엄밀히 말하면, 잉글리시 레스터(English Leicester)와 보더 레스터(Border Leicester)의 두 가지가 있다. 19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 국경지방의 보더 레스터가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잉글리시 레스터로 불리게 되었다.

잉글리시 레스터는 영국 장모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양종으로서 그냥 레스터라고 하며, 영국 양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양이다. 양모의 섬도는 38 ~ 42 μm , 길이가 300 ~ 350 mm, 연간 수모량은 5 ~ 6 kg이다.

보더 레스터의 섬도는 34 ~ 36 μm , 길이는 200 ~ 250 mm, 연간 수모량은 2.7 ~ 4.5 kg이다.

5. 다트무어(Dartmoor)

영국의 남서부 다트무어 지방이 원산지다. 체질이 강하고, 해발 700 m 되는 고지대에서

관목과 자연의 잡초만으로 사육되고 있다. 양모의 섬도는 $46 \sim 50 \mu\text{m}$, 길이는 $225 \sim 300 \text{ mm}$, 마리당 연간 수모량은 6.5 kg , 스테이플의 폭이 넓고, 권축이 있는 Luster wool이다.

♣ (공석봉)



<Lincoln>



<Romney Marsh>



<Cotswold>



<Leicester>



<Dartmoor>